



제1회 건설보건협의회 워크숍, “건설업 보건관리 중요성 커진다”

글·사진 김지명 안전신문 기자

건설업 보건관리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효과적인 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10월 20일 서울 서초구 리버사이드호텔 노벨라홀에서 건설보건협의회와 대한산업보건협회가 공동 주최한 제1회 건설보건협의회 워크숍이 개최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으로 건설사들은 안전보건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분야에 비해 ‘보건’ 분야는 뒤처지는 실정이다. 협의회는 2017년 비영리법인으로 처음 만들어져 2018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현대건설과 10개 회원사로 시작해 현재는 30개 회원사와 명예회원인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은 ‘건설노동자 직업성 사망재해 ZERO’를 주제로 진행됐다. 전국의 건설업 보건관리자 130여 명을 비롯해 보건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워크숍에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건설업 업무상질병 꾸준히 증가

건설보건협의회 김나래 회장(현대건설 안전관리본부 매니저)은 “첫 번째 워크숍을 통해 건설업종에서의 안전보건조치를 되돌아보고, 더 나은 보건관리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 전 이사장이자 현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인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건설업이라고 하면 안전조치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보건 부분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건설업 업무상질병 발병률이 2019년 13%, 2020년 14%, 2021년 15%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건설업 보건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건관리 제도도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필요

이날 워크숍은 ▲건설현장 보건관리 대책 ▲중대재해 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질식재해 예방 대책 ▲건설노동자 중독 사고사례 등에 대한 발제로 진행됐다. 첫 발제를 맡은 임영섭 미래일터연구원 원장은 “산업재해율이 낮은 일본은 보건관리자들의 능력과 역할을 인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며 “기업 내 보건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산재 예방의 지름길,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사망사고 예방의 핵심은 관리감독자가 위험요인별 필요한 안전조치가 돼 있는지 확인한 후 종사자들이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워크숍에서는 김부욱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팀장의 ‘질식재해 예방대책’과 김용규 근로복지공단 교수의 ‘건설노동자 중독 사고사례’ 발제가 이어졌다. 🍃

Mini Interview

보건관리자, 그에 맞는 대우가 중요

김나래 건설보건협의회 회장

Q. 워크숍 개최 이유

건설현장에서는 보건보다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을 더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동절기가 오면 질식, 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보건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에 건설사들의 보건 분야 안전의식 고취를 돕기 위한 취지에서 개최했다.

Q. 산업보건분야에서의 개선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안전 분야는 건설기술 인협회를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지만 보건 분야는 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보니, 경력자들에게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간호, 위생 모두 경력 관리가 되는데 보건 분야만 없는 실정이다. 기업의 효과적 보건관리를 위해 보건관리자 경력 대우가 필요하다.

